

## 초대형서점 전국 곳곳에 출현

서울 대형서점 지방 진출 구체화

국내 서점가에 태풍이 밀려들고 있다. 태풍의 눈은 서울의 초대형 서점. 서울문고·영풍문고 등이 1천평이 넘는 초대형 서점 개장을 준비하고, 종로서적·교보문고 등이 지방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본모습을 드러낼 내년 초부터 전국 서점가는 혈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문고(대표 김천식)는 내년 3월 무역센터 코엑스 프라자에 3000평(실평수 1650평) 규모의 초대형 서점을 연다. 김종화 서적사업부장은 "국내 최대 규모에 맞게 주변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조화되는 토탈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해 고객이 주인되는 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서울·영풍문고 강남에 3천여평 규모

서울문고는 서적만을 취급하는 순수 서점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기획단계부터 주변 상권과의 조화를 통해 순수 매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책을 찾는 고객중심의 매장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매장에는 휴게공간·독서공간 등을 갖춰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인형극장, 인터넷라운지 등도 마련한다. 무역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할 서울문고는 주변의 백화점·전시장·공항터미널·호텔·수족관·복합영화관 등을 이용하는 일일 유동인구 40만을 대상으로 독자 흡수에 나설 계획이다.

영풍문고(대표 윤성노)는 내년 3월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자리에 들어서는 센트럴시티 지하 1층에 3600평(실평수 1500평) 규모의 지점을 개장한다. 150평 정도의 문구 매장을 제외한 공간을 모두 책으로 채워 역시 순수 서점을 지향한다.

영풍문고는 센트럴시티 지점에 북카페·이벤

트홀·쉼터 등을 만들어 고객이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또한 기존의 사이버 서점을 더욱 강화하고 북클럽회원에 대한 편의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같은 건물에 들어설 백화점·호텔·쇼핑몰·극장 등을 이용하는 인구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일일 1백만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독자 확보에 나설 계획인 영풍문고는 기존 사무실을 영동 사거리의 영풍빌딩으로 이전해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 손재완 부사장은 "터미널에 위치해 전국 단위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그에 맞는 특성을 갖춰 경쟁력 있는 서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기업 골드뱅크는 11월 보라매아카데미타워 지하 1층에 1200평(실평수 600평)의 복합매장 골드북(대표 김진호)을 설립한다. 서적·문구·음반·컴퓨터·시디 등을 취급하는 골드북은 골드뱅크를 이용하는 1백만 회원과 서울 남서부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 종로는 프랜차이즈 등 지방진출

강남에서 부는 바람은 곧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인다. 그 중심에 있는 서점은 종로서적(대표 민병인)과 교보문고(대표 윤경하). 이들은 최근 지방진출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종로서적은 프랜차이즈 형식의 진출을 도모

한다. 이미 숙명여대 앞에 자리한 양지서림에 대해 물적·기술적 지원을 경험한 종로서적은 조만간에 전국 단위의 지점망 공모를 밝힐 계획이다. 김종년 이사는 "도서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선에서 종로서적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서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 강남점 개장을 확정해 놓은 상태인 교보문고는 최근 대구 등 각 지방 진출에 대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지방진출에 대한 말은 벌써부터 떠돌았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회사인 교보생명의 사옥이 전국 주요 도시마다 핵심 상권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서울의 대형 서점은 이미 지방에 진출해 있는 상태다. 교보문고는 대전·성남, 영풍문고는 인천·부천, 을지서적과 서울문고는 분당, 영등포문고는 대전에 각각 진출해 있다. 이들은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지방 진출을 확대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의 기존 서점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얼마전 지방의 중·대형 서점인이 모여 연말 안에 '한국서적경영인협회' 발족을 천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오원진 기자



지방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서울 대형서점

